성경을 ‘공부’하는 영적 무지

(출16:21~36)

26.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0.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영적 무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영적 무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만나를 거둘 때에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이틀 분을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라서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내용으로, 안식일에는 집 밖에 나가지 말고 모든 삶의 일을 중단하라는 안식일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처음으로 내려지고, 읽지 않은 부분에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기념물로 간수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시는데,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언급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공부하는 영적 무지’라는 제목은 본문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제목입니다만, 성경 공부와 관계된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안식일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고 혹시 들판에 또 만나가 내려왔을까 궁금해 하며 들판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계명과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서 본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을 때에도 15:25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 모세가 시내 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은 본격적인 율법과 계명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계속해서 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와 만나를 간수하라는 지시가 담겨있는 본문을 통해서, 시내 산에서 본격적으로 주어지기 이전의 율법과 계명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착안해서 살펴볼 때 바로 제목인 '성경을 공부하는 영적 무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성경 공부로 인도했고 성경공부에 큰 비중을 두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참 무지한 상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하면 으레 '공부'라는 말이 따라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공부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고, 얼마 전에 EBS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성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다섯 가지 항목으로 임금(월급), 일, 여가, 대인관계, 주관적(체감) 행복지수로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만족스럽다는 상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출신 대학을 조사해봤더니, 63%가 그냥 평범한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 출신이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명문대 출신은 37% 밖에는 안 되었답니다.
분명히 공부를 잘 해야 하고 명문대를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주된 동기와 의도 속에는 월급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이 받기는 받는데 평균을 따져보니 지방대나 전문대를 나온 사람보다 한 달 평균 25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느낌에는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일류대학은 37%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 결론은 공부성적과 실제 삶의 만족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대한민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프로그램이라든지 성경공부프로그램이 아주 대세가 되었는데, 그렇게 성경공부가 대세인 교회 안의 현실과 교회 밖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통하여 신앙인답게 살아가며, 신앙적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만족도는 전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한 마디로 성경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에서 선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천적 삶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만족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성경공부 많이 하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 부부가 방문하셔서, 새신자가 공부할 수 있는 적당한 성경공부 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이유는 교회에 잘 나오시는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듣다보니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서 성경공부를 위한 책을 소개해 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오리지널 새신자 교육"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그것과 연관 지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으레 우리가 새신자 교육을 한다고 하면 성경공부부터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신론, 기독론, 구원론, 화해론, 교회론, 예정론, 섭리론 등의 조직신학적 항목에 대한 기초지식을 소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캘빈의 기독교강요도 실제로 이런 의도로 쓰인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첫 권을 보면 18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있는데 그 항목을 다 공부해도 참 선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도 성경하면 으레 공부가 따라붙어 버렸는데 이것이 영적 무지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공부하도록 되어있는 책이 아니고, 만남을 위한 책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와 만나지시고, 만나지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공부를 통한 그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서 우리와 만나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반복해야 하는 행동패턴을 요구하시므로, 공부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질문하면서 접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요?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그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므로, 당연히 그 만남 속에서 내게 요청되는 행동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있어서 내가 밥을 해줘야 하고, 빨래를 해줘야 하고 그 대신에 그가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남편이고, 똑같은 남자라도 내가 그 분에게서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남자는 목사님이고, 내가 만난 남자에게 기저귀를 채워야 하고 젖을 먹여야 하는 남자라면 내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남은 구체적인 나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들이 성경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시고 지식과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마라의 쓴물 사건, 엘림 사건, 만나 사건들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므로 그 사건에서 선민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요청되며,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쭉 크면서 아들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사실은 아버지가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의 신분, 지위, 역할, 인지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에는 자기 집이 좋은지 나쁜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도 모릅니다. 그

래도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알고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합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며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와 사랑이 담겨지고, 이후에 장성해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집안의 형편에 대해서 깨달아 갑니다. 그런데 성경공부는 2~3살짜리를 앉혀 놓고 아버지가 밖에서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이라든지, 공무원인데 역할은 이러이러하다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영적 무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행7: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났지만, 아브라함은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조차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요청된 것은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이 되는 것으로 1등한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마음 쓸 곳이 많았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자식도 낳아야 하고, 아름다운 아내인 사라에게도 마음을 써야 하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재산에 관심을 둬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이것이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새신자들에게 기대되는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에 새신자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자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속성은 어떻고, 본질은 어떻고, 이렇게 대단한 신학적 지식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대세를 이루며 철철 넘치고 있어도 삶은 조금도 바뀌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지십니까?
"할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속성에 대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가르쳐주시는데, 전능하다는 말조차 실감도 안 나고 경험하지도 못했으니 뭔지를 모르지만, 그 전능하시다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을 생활 모든 곳에서 잊지 않고 그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업이 힘든 상황에서도 사업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던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마음가짐 하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출애굽 때에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유월절 사건으로 주시는데 이 유월절 사건은 아브라함이 처음만난 영광의 하나님의 내용이 옮겨온 것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선민 모두는 내 마음 안에서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장자라는 것은 초태생으로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이고, 나머지 관심사들은 그 첫 번째 관심사에 종속되게 되고, 첫 번째 관심을 갖는 것이 잘 되기 위해 나머지 것들에도 관심을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태생의 장자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사와 같은 것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것을 다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관심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었던 아브라함과 만나셨던 하나님이 공동체로 출발하는 선민들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만나시고, 유월절 사건은 영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한 가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심사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선민으로서 출발할 수 있고, 그래야만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은 “가만히 있기”를 가르쳐주셨으므로 이러한 행동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홍해 같은 샌드위치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선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기’는 앞뒤로 나를 몰아세우는 위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로 나를 몰아세우는 위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게 하는 것으로 위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기가 되는 것이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것인데 이 율법과 계명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한 그의 서신 등에서 율법과 대항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의미에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 본래 율법과 계명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쉽게 말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해야 하는 행동패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이 땅에서 공급되고 땅에서 충족된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 선민들은 비가 내리듯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죽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는 집 밖에서 일이 있어야 하는데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인간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으로 장례식 때 하관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밖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마음을 쏟고, 정성을 들여야 할 관심사들이 많은데 안식일은 그것들에 대해 다 죽으라는 뜻으로 유월절의 연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고, 영광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1등 하신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할례는 그렇게 1등 하신 하나님을 늘 1등으로 모시고 유지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것으로, 사업이나 건강 문제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것이 1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 유월절의 의미가 그렇게 앞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장자를 죽임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의미를 재현시키십니다.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람이 도저히 그 의미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1주 단위로 쪼개서 실행하게 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유월절은 나의 삶에서 관심거리가 되는 것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관심으로 모시기 위해서고, 안식일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일주일마다 반복되던 안식일이 이후에 십자가 사건으로 다 모아집니다. 유월절은 1년마다 기념하며 다른 관심사를 죽이는 것이었고, 안식일은 1주마다 다른 관심사를 죽이는 것이었는데, 십자가는 매 순간 매일매일 관심사를 죽이며 하나님께서 1등 하도록 만드는 사건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어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에 만나는 비가 내리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고,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관심이 이 땅과 땅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죽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죽음의 땅에서 40년간을 옷도 해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으며, 굶어죽는 사람도 없이 살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땅에 대해서 죽어서 오직 하나님이 1등 관심사가 되도록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에서 안식일 사건으로 시간적 범위가 점점 줄어들다가 드디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죽게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죽는 삶이 이어지는 이것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사건으로, 그 하나님과

만날 때에 내게 필요한 행동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과 역사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해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을 통해 만나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말하는 것은, 안식일의 완성이고, 유월절의 완성이고,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 만남을 완성시켜주는 그 십자가 사건 하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까? 세 살짜리에게 아버지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가르쳐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에는 아빠와 두터운 신뢰관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빠가 죽어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면 이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섭리하심과 이끄시는 모든 속성들은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그때 깨달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미리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볼 때에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경 한 구절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줄 것인가를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어느 구절에서든 십자가를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십자가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왜 반복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나 어떤 식으로든지 십자가가 전해지는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지식으로 변하고 교리로 변해버립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전할 때에 십자가가 오늘의 사건이고 나의 사건으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방송을 함께 하는 분들은 한 달만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실험적으로 한 달만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모든 십자가 생활화의 원리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교리와 지식으로 남게 되고 무력해집니다. 날마다 듣고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을 오늘의 내 사건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지도 못하면서 온갖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만날 때에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가르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만나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만 가르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다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다음에 ‘공부’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제

자신이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경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책임을 알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나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응답으로 대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